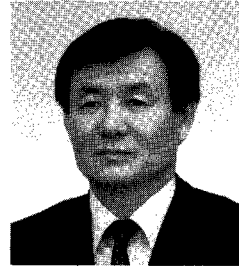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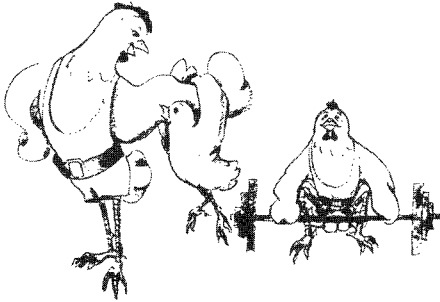


양계산업의 발전과 과제



강 정 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다 가오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는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보다 높아지고, 서구식 식생활 문화가 확산되며,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식생활 패턴은 보다 빠르게 고급화·편의화되고, 위생·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양계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는 농장단계에서의 생산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며, 경쟁지역도 생산농장이 아니라 최종소비자 시장이 될 것이다.

즉 경쟁력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가격, 장소, 시기에 상품을 누가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특히, 양계산물의 경우 기존의 개별적인 생산, 가공, 유통의 경영구조로는 품질관리와 소비자 서비스에 일관성이 없어져, 소비자가 원하는 양계산물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통합하여 일관경영에 의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품을 개발하며, 유통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양계산업이야말로 말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경영 체제하에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계산업의 계열화(integration)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있어 우리 양계산업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양계산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열화가 추진되어 지금은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으며 일관된 의사결정하에서 대내외적인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계산업의 계열화가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어 현재 계열업체의 국내시장 점유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계열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산 및 유통과정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참여자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 생산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완전통합수준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완전통합단계까지 이른 업체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부분통합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태에 있다. 양계산업의 계열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양계산업에 있어 종계수급이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닭고기의 소비가 불안정하여, 소비가 감소할 경우 종계의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지만,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종계의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양계산업이 투기화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양계농가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화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계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양계산업의 투기화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중소기업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자단체에 의한 계열화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계열화가 부진하며, 농가참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의한 계열화는 일부지역의 부분적 통합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민간 계열화업체에 비하여 계약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양계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계열업체와 함께 협동조합에 의한 계열화의 추진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양계산물의 가격차별화가 정착되고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소비시장에서는 닭고기의 품질보다는 가격에 의해 경쟁력이 크게 좌우되고 있어, 위생수준과 품질이 떨어지지만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계열업체가 경쟁력을 가지

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품질을 보장하는 자
기상표를 가진 계열화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농가에게 전가된다.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정부는 소
비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위생 및 냉장육 유
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도계장 및 가공시설의 위생에 관한 감독 강
화는 물론이고, 위생육의 유통 정착을 위한 위
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수송차량의 냉장시설을
의무화하고 냉장육 수송(cold chain system)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
부는 우선적으로 유해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실행을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
이다.

계열업체도 자사의 우수한 품질의 위생적인
제품이 차별화 되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차
별화를 위한 개별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질 좋은 양계산물의 수요저변 확대
를 위한 판촉활동 및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공
동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계열업체들의 자조금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
다.

넷째는 양계 계열화사업 참여 구성원들간의
신뢰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양계계열농가가 닭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계열주체와의
이해부족으로 상호불신과 계약파기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계열농가와 계열주체간의 문제점은 대부분

육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
한 피해 보상, 계열농가의 사양관리 미숙으로
인한 육질·육량 저하 문제, 생산성 향상에 따
른 인센티브 부족, 시장가격 상승시 계약파기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계열 양계농가 스스로 해결
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계열주체와 정부의 역할
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가축질병으
로 인한 양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계열주체별 또는 권역별로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적으로 질병폐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한우와 낙농부문에
적용하여 운영중인 가축공제제도를 양계부문에
도 도입하여 사후적으로도 농가의 피해를 최소
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계
열농가 사양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 도입 및 지원, 생산성향상에 따른 실질적
인 인센티브제 도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계열양계 농가도 자신의 경영목표를 단기적
인 이윤극대화에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소
득안정에 두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열
화사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양계산업이 계열화 방향으로 발전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양계수급 불안정에 따른
양계농가의 소득 불안정이 해소되고 있으며,
계열화 업체가 농촌지역에 거점을 확보함에 따
라 농촌지역의 유희노동력을 고용하는 효과까
지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양계 계열화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계**